ART GANGNEUNG

아트강릉 22

Gangneung Arts Center

2022. 6. 13(MON) - 6.19(SUN) 7 Days

강릉시 강릉예총 KBS 강릉 Gangneung Branch of the Korea Fine Art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인사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강릉만의 자생적인 아트페어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도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야심차게 진행하는 프로젝트 '아트강릉22'는 동해안 시대의 새로운 미술의 지평을 열고자 마련한 영동지역 최초의 아트페어입니다.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인 강릉이 다양한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울린 문화관광 도시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아트강릉22'도 시장 기준을 뛰어넘기 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7: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들이 '아트강릉22'에서 또 관람객들과 차원높은 교감의 시간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은 현대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한국을 넘어 세계 미술시장과도 교류할 수 있는 미술축제의 파트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각박한 이 시대 우리에겐 더욱 예술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예술가를 응원하며 현재를 견디고 새로운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하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에 예술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작품
새로운 경험

'아트강릉22'가 우리의 미래와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2022. 06. 13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장 **김 태 규**

인사말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아트강릉22'에 초대합니다.

팬데믹으로 닫혀 있던 미술 시장은 온라인 판매, 밀레니얼세대의 미술품 구매, 새로운 미술 NFT의 출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었던 훈풍이 올해도 이어지며 미술시장을 향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동시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문화를 거침없이 소비하는 문화 향유의 시대로 미술도 역시 국제적 교류와 경쟁으로 치열한 승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술 시장은 'K-콘텐츠'에 이어 'K-아트'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열리는 '아트강릉22'는 지역의 고유한 예술적 정체성을 실현하며,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미술시장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강릉22'에서는 창작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울림을 자유롭게 담아낸 20명 작가와 '아트강릉21'에서 선정된 두분 초대작가의 작업세계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시대 변화하고 있는 미술의 흐름을 경험하고 첨단의 재료와 기법을 융합한 개성있는 작가들의 차별화된 감성을 느끼며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2명의 작가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사고의 전환과 시야가 확장되어 미술 본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될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작가분들게 감사드리고 '아트강릉22'를 통해 강릉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술시장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강릉이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열기를 더해가는 예술 콘텐츠의 새 장을 이어가며 미술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부디 축제의 장을 찾은 여러분 모두 '아트강릉22'를 통해 예술 작품의 가치와 감동을 제공받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축제의 장을 찾은 여러분 모두 '아트강릉21'을 통해 예술 작품의 가치와 감동을 제공받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 06

아트강릉22 공동위원장 **김 정 남 · 강 유 림**

축 사

바다와 숲이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빛을 찾아가는 여름의 문턱에선 6월,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만의 독자적인 색을 가진 7일간의 미술 축제인 『아트강릉22』 개막을 온 강릉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2021년, 이전까지 3개 도시(강릉·춘천·원주)가 함께하던『강원 아트페어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국제적 미술 축제『아트강릉21』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아트강릉22』를 성심껏 준비해 주신 여러 작가님과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김태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트강릉22』는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작가와 시민이 한데 어울려 소통하는 축제와 전시회를 접목한 새롭고 다채로운 무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이 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전시장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작가들의 신선함과 열정이 공존하는 더욱 풍성하고 품격있는 전시회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그 표현의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예술작가의 눈이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우리 일상과 주변에서 작가만의 독특하고 훈련된 눈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어 우리가 작가의 눈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고귀하고 헌신적인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술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여정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신 작가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미술인 여러분! 『아트강릉22』가 작가와 미술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가교로서, 강릉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 또한 천년 역사의 멋과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우리 강릉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트강릉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강릉시장 **김 한 근**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미술문화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아트강릉 22」 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강원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번 전시회를 마련해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김태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작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현대문명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풍요해짐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미술과 점점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작품을 만들고 표현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아트강릉22'전시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인해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시회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에게도 이번 전시회가 창작의 의지를 높이고, 미술의 지경을 넓히는 밑거름으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강릉은 예로부터 전통과 예향의 멋을 갖춘 도시로 문화와 예술을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예술인분들과 함께 선도해 나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강릉이라는 큰 도화지 위에 다양한 색을 가지고 미술축제를 선보이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아트강릉 22'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강릉시의회 의장 **강 희 문**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향의 도시 강릉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축제와 전시회를 접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미술작가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인 '아트강릉2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신 한국미술협회 김태규 강릉지부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만의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국제적 미술축제 '아트강릉21'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아트강릉22'에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6월 셋째 주에 일주일간 열리는 '아트강릉22' 페어가 다양한 작가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 지역작가뿐 아니라 국내 유명작가와 갤러리,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아트페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트강릉'을 통해 지역 예술문화가 활성화되어 강릉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번 찾는 대표적인 지역 예술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강릉의 예술문화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창작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강릉이 세계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트강릉22'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전시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의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문화예술행사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여 예향 강릉의 예술문화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강릉미술협회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강릉미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국회의원 **권 성 동**

축 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한가운데 열리는 제2회 “아트강릉22”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강릉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강원권에서는 처음으로 시 단위에서 개최된 아트강릉이 올해 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강릉은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미술협회 회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그에 맞게 다양한 기획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트강릉22는 이러한 미술인구 자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작가들의 노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미술협회 작가님들과 협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개방형 전시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며 아트강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전시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 각 분야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전처럼 마음 편안히 문화예술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전시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며 아트강릉을 통해 강원도 영동권의 활발한 미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강릉미술협회 김태규지부장님, 실무자들과 작가들에게 적극적인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본 전시를 통해 미술 작가들이 힘을 모아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예술작품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며 긍정적 예술의 기운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본 행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2022. 06. 13

강릉예총회장 **박 선 자**

Booth No. 1 이 장 우 Lee Jang Woo

A. 강원도 강릉시 저동골길 118
M. 010-4250-6536
E. wooo620@naver.com

- 개인전 12회 개최 : 학고재 아트센터, 강릉아트센터, 청풍갤러리, 밀알미술관, 가나인사아트센터, 동해문화예술회관, 갤러리 봄아, 횃불트리니티갤러리, 슈페리어 갤러리, 갤러리 4F 등
- 단체전 12회 참가 : 강원국제예술제 특별전, 강원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전, 강릉미술협회 회원전 등
- 수상 : 강원미술대전 특선, 올해의 청년작가상 수상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동해시청, 영동극동방송 등

자연과 도시, 문화유적 등 풍경을 그려오고 있는 이장우는 활동 지역인 강릉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자연, 도시, 역사적 풍경을 평면 회화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독특한 색감과 두터운 마티에르는 이장우작가의 고유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간 창작 활동이 축적되면서 점차 지역의 확장을 통한 소재의 발굴과 지역의 지리적 환경 및 계절적 차이에 따른 풍경의 다양한 변화를 고민하고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65.1x90.9cm, oil on canvas, 2022

양귀비 65.1x45.5cm, oil on canvas, 2021

배롱나무 91x91cm, oil on canvas, 2020

Booth No. 2 김 성 훈 Kim Sung Hoon

A.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828 정릉스카이쌍용아파트 101-1208
M. 010-5526-2829
E. zkfals1004@naver.com

- 2014 권진규아뜰리에 두집프로젝트 예술인복지재단후원
- 2012 오뉴월+스페이스캔+캔캔프로젝트
- 2012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 (공룡의 재해석)
-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금산이슬공원)
- 2011 서울오픈아트페어 (노보텔강남)
- 2010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씨티 (국민아트페어)
- 2009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피의 즐거운 미술관)

우리는 들숨과 날숨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알루미늄 호일을 비틀거나 구겨서 '틈' 사이로 공기층(+)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두드려서 틈 사이를 좁히고 공기를 빼나가며(-)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세상에 표현되고 싶은 형태가 나오도록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며 처음의 모습보다 점점 작아지며 단단해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
우린 지난 시간 자신을 격리하고 '틈' 을 유지하며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두드리며 단단해져 왔다.
*주의사항 : 너무 단단해지면 형태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두드림 33x30x54cm, aluminum foil, 2022

고릴라 24x30x31cm, aluminum foi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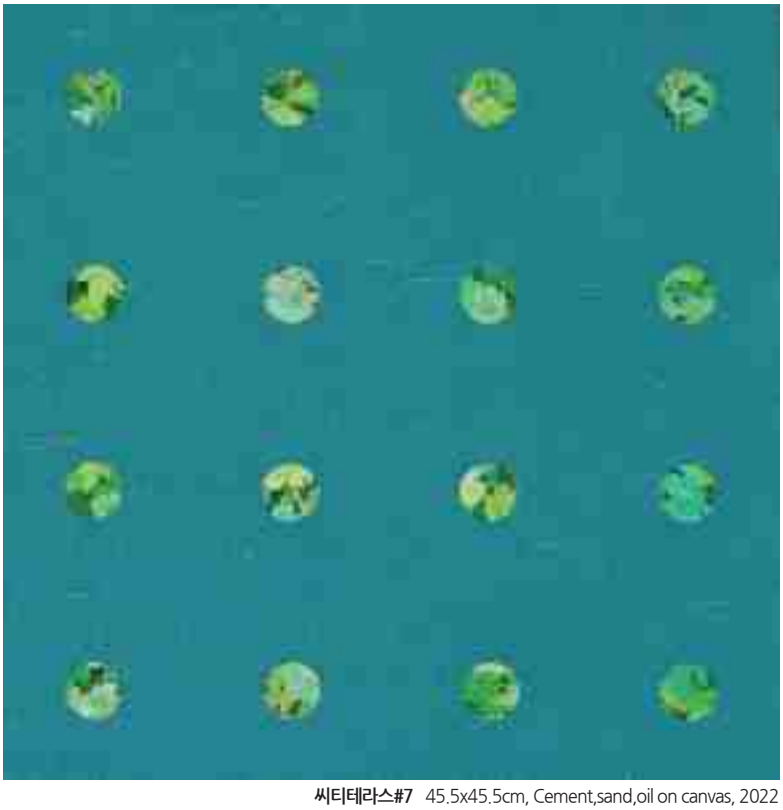
Grandmother's dog 20x21x35cm clay, steel wire, soul seed, 2011

Booth No. 3 신 연 수 SHIN YEON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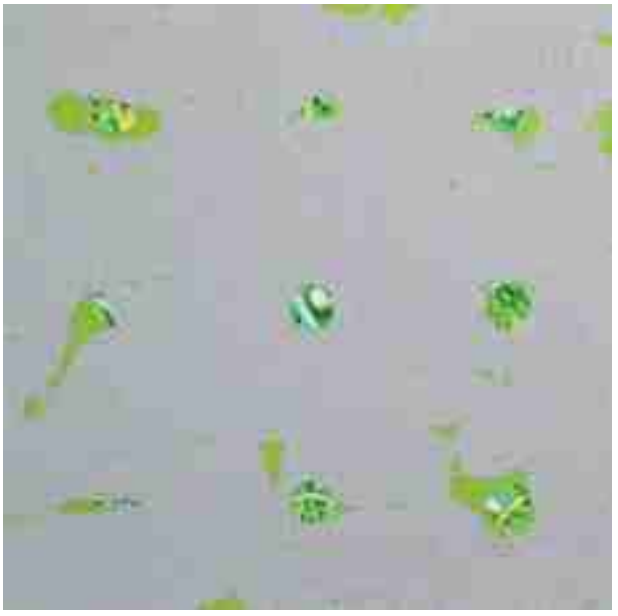
A.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2 (천송동, 여주KCC스위첸) 102동 1202호
M. 010-7210-2878
E. artistevianshin@gmail.com

-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 2022 무너지고 세워지는 OO (학고재 아트센터, 서울)
- 2022 K옥션 경매전시 (케이옥션본사, 서울)
- 2021 중앙회화대전 (한국미술관, 서울, 특선수상)
- 2021 아트프라이즈강남 (논현가구거리 아트관, 서울)
- 2020 제41회대한민국창작미술대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서울, 동상수상)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특별전 (정북동 토성, 청주)

본인은 인류세(Anthropocene)가 남긴 지질학적 흔적 중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를 도시의 상징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도시(건축)개발에 따른 통제되고 규격화된 생태환경을 여러개의 원형으로 그리드 형식의 배열로 표현한다.
자연과 건축이라는 큰 주제는 가장 단순한 단위의 도형 원형으로 압축시키며 자연의 본질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원형은 멀리서 보면 단순한 색점으로 보이나, 가까이 들여다 보면 원 안에 자연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인은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 이상의 주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씨티테라스#7 45.5x45.5cm, Cement,sand,oil on canvas, 2022



씨티테라스#12 45.5x45.5cm, Cement,sand,oil on canvas, 2022

씨티테라스#9 45.5x45.5cm, Cement,sand,oil on canva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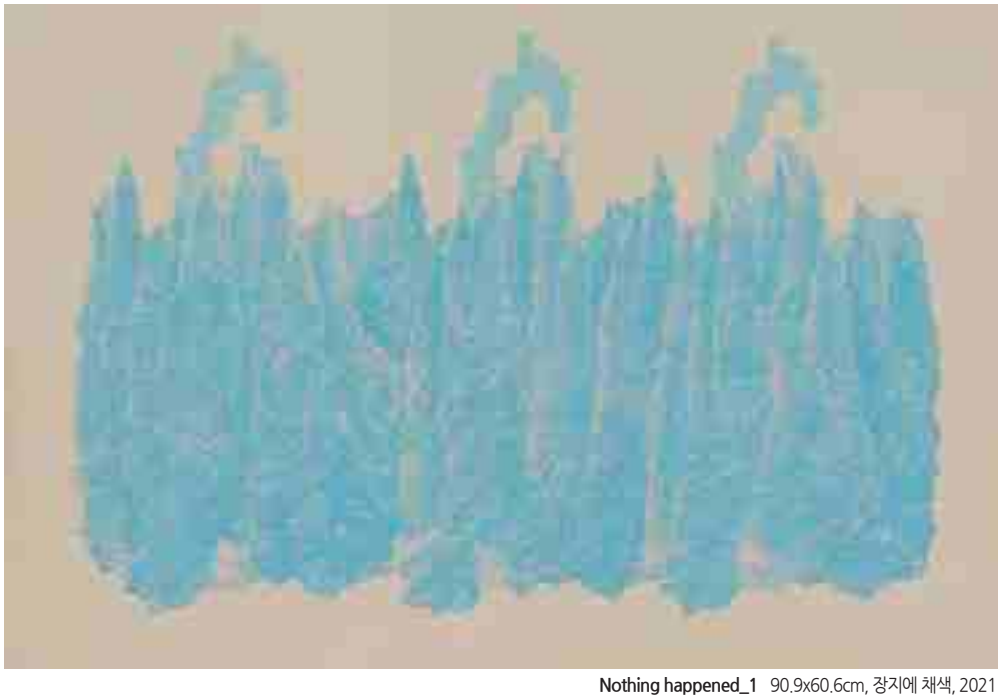
Booth No. 4 정 서 원 JUNG SEO WON

A.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글로벌학생생활관 917동 613호
M. 010-3114-6796
E. seowan3@naver.com

개인전
- 2021 어제 그제 그그그제, Gallery Aria, 서울
- 2021 The Ordinary Square, 부연, 인천 (인천문화재단 바로그지원 선정)

그룹전
- 2021 제 2회 INSAF,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서울 (INSAF 평론가상 수상)
- 2021 Space by, Youngart lab, 서울
- 2021 연유, art dorm, 서울
- 2021 ASYAAF,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22 Articovery top9 선정

일상에서 문득 겪는 안정적인 '이상향의 순간' 에는 모호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마주치는 가변적인 것들의 찰나가 함께 담겨 있고, 이를 담아두기 위한 수집 행위가 반복된다. 이러한 행위로 부터 스티커나 우표를 종이에 붙여 모으던 아날로그적 취미를 떠올렸고, 연약하고 얇은 일상의 파편을 단면적으로 포착하여 풍경의 일부를 오려 붙이듯, 채집한 일상을 화면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Nothing happened_1 90.9x60.6cm, 장지에 채색, 2021

Nothing happened_2 90.9x60.6cm, 장지에 채색, 2021

Removable_1 24x24cm, 장지에 채색, 2021

Booth No. 5 최 미 향 Choi Mihyang

A.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3길14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M. 010-2029-3107
E. rola2222@daum.net

학력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개인전 2021년 'the turn of life' 서진아트스페이스
2018년 '섬' 나우 갤러리
단체전 2019년 部族時代 PLACE M(일본)
2017년 부산국제사진전 부산문화회관
2017년 그라운드 제로 양평군립미술관
2016년 MYSELF 74갤러리
2015년 한일교류전 모지꼬 모지세관미술관(일본)
2015년 10인 출판기념전 구로 아트센터 외 다수
사진집 2015년 파아란 설레임 (출판사 반디모아)

The Turn of Life

사람들은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크게 느끼게 되는 시기가 있다. 특히, 호르몬에 의한 신체의 급격한 변화는 심리적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 시기엔 몸과 마음의 불일치로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갱년기가 병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우울, 의욕상실, 불안, 강박, 분노, 소외, 허무 등 추상적인 감정을 사진이란 매체를 통해 담담하게 표현해 보려 했다.

Obedience 80x55cm, Pigment_based Inkjet Print on Epson Premium Lustre, 2019

다시 봄은 올까요 80x55cm, Pigment_based Inkjet Print on Epson Premium Lustre, 2019

마른슬픔 80x55cm, Pigment_based Inkjet Print on Epson Premium Lustre, 2020

Booth No. 6 김 경 주 KIM, KYUNG-JOO

A.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9, 성수W데시앙플렉스생각공장, 6층-613호
M. 010-3223-8243
E. kj58sun@hanmail.net

2021 Unknown Square, 김경주초대전, 서울정부청사갤러리, 서울, 한국
2019 아름다운 독백, JW메리어트호텔, JW메리어트호텔후원, 키즈캔 협업, 서울, 한국
2018 외계정원 vol.2, 박수근미술관 파빌리온, 양구, 강원도, 한국
2017 외계정원 vol.1, 필룩스조명박물관 초대전, 양주, 경기도, 한국
2013 ANALOGUE DIALOGUE DRAWING, DSA GALLERY, DUNEDIN, NEW ZEALAND, 국립현대미술관과 ASIA NEW ZEALAND FOUNDATION 후원 and DSA GALLERY 기획 초대, 뉴질랜드
2002 DIARY IN PRAHA, UNESCO ASCHBERG 후원, CONTEMPOARY ART CENTER IN PARAHA 기획, PRAHA, CZECH, 프라하, 체코
2002 telling,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 후원, 아르코 미술관 기획 개인전, 서울, 한국

고분자 화합물의 역할 (테이프, 아크릴물감) '끈적끈적 한' 질감의 그것은 테이프의 접착제이든 물감이든 작가에게는 '틈'을 메우는 재료이고 그 틈을 채우는 행위는 작가가 매일을 보는 방법이다. '본다' 라는 것은 새로운 틈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추상이 된다. Unknown Square 화면 위에 남은 압축된 스퀘어들은 작가의 시점과 풍경의 흔적이 되고, 결국 상상과 경험이 만들어낸 지도가 된다. 그 지도는 언노운 스퀘어의 텍스트이며 이미지가 된다.

Unknown Square 45x45cm acrylic on canvas 2022

Unknown Square 45x45cm acrylic on canvas 2022

Unknown Square 45x45cm acrylic on canvas 2022

Booth No. 7 권 승 연 Kwon,seung-youn

A. 강릉시 경포로 371번길 27, 2층
M. 010-4560-9332
E. yellowham@naver.com

-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 석사
- 개인전 6회(서울, 강릉, 대구)
- 개인부스전 4회(요르단, 서울, 베이징)
- 아트페어 3회(KIAF(2회), ART DAEGU)
- 2021 강릉아트센터 특별기획 초대 "차, 자연을 마주하다"전
- 2021 강원트리엔날레 서울옥션& in강원, 프리뷰전외 다수의 단체 초대전
- 작품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강릉시, ㈜ ALT, 다수의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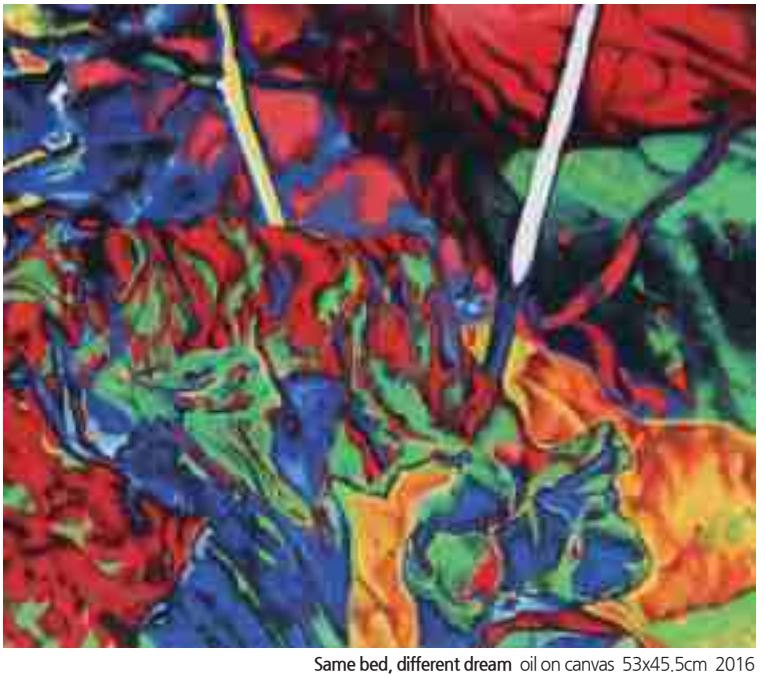
– 동상이몽 –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똑같은 그림 앞에 서로 다른 느낌을 나누는 우리 마음의 꿈들이 아닐까. 지난여름과 가을 경포 습지를 달구며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간 태양의 시간과 그것을 받아들인 연꽃과 연잎들의 시간과 또 그걸 화폭으로 옮긴 화가 권승연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아우르며 저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적 꿈까지, 그 모든 것이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그림으로 사물의 마음과 다른 관람자의 마음까지 살피게 한다.

– 전시 서문중에서, 소설가 이 순원 –

Same bed, different dream 53x45.5cm oil on canvas 2016

same bed, different dream 27.3x27.3cm 혼합재료 2021



Same bed, different dream oil on canvas 53x45.5cm 2016

Booth No. 8 김 소 선 kim so sun

A.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길133-7
M. 010-5093-4322
E. sosun77@naver.com

- 2005 강릉원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8회 단체전다수
- 2020 홍천동심 조각공모전 최우수
-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
- 2008 신사임당미술대전 대상
- 2018 강릉시 월화거리 조형물 선정작가-언약
- 작품소장-강릉시,홍천군,천안예술의전당,단원미술관

밝아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어릴적 천진난만하던 동심의 기억을 소재로
조금 모난이유로 버려지고 방치되는
폐건축석을 활용하여 재해석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석판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하나의 기억의 덩어리를
동심을 회상할 수 있는 소재로 조형적으로 표현합니다.
저의 시간을 쌓아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물 370×340×520(H)mm 대리석,건축석 2021

꼬꼬 300×240×270(H)mm 건축석 2021

곰돌이 220×220×300(H)mm 건축석 2021

Booth No. 9 최 은 숙 Choi eun sook

A.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0-1 거성파스텔APT 105동 703호
M. 010-8740-9665
E. choice0095@hanmail.net

- 2021 "그리운 풍경 공감하기"-최은숙展 개인전, 아트뮤지움 린, 서울
- 2020 " 心象風景_심상풍경/마음속 생각"- 최은숙展 개인전, 엠갤러리, 서울
- 2017 "공존의 경계" 展 초대전, 불일미술관, 서울
- 2016 "공존하는 공간" 展 개인전, 이즈갤러리, 서울
- 2015 "그들과 함께 여기에" 展 초대전 ,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개인전
- 2014 한·중 현대미술전 '여정' (7/23~10/9), 기당미술관, 제주도
- 2014 '시대정신과 동양회화의 표현의식'展 (1부: 2/5~11), 한원미술관, 서울 외 그룹전 다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자신만의 내면의 세계 즉, 마음속 한곳에 작은 휴식처를 가지고 있다.
그곳은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유년시절의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쉬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그런 공간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인간에게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쌓아가게 한다.
삭막한 도시 생활의 중심에서 마음의 여유를 좀 더 찾을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극복하는 감정의 공간으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
전통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유년기에 경험하고 느끼는 기억과 감정을 상상의 이미지와 자연과의 조화로 작품 속에 창조해
표현하고자 한다. 점점 사라져 가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情'** 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심상풍경 53X45.5cm 장지에 혼합채색 2020

심상공간2 53.5X45.5cm 장지에 혼합채색 2022

休 45.5X53cm 장지위 혼합채색 2021

Booth No. 10 유 재 희 YOO JAE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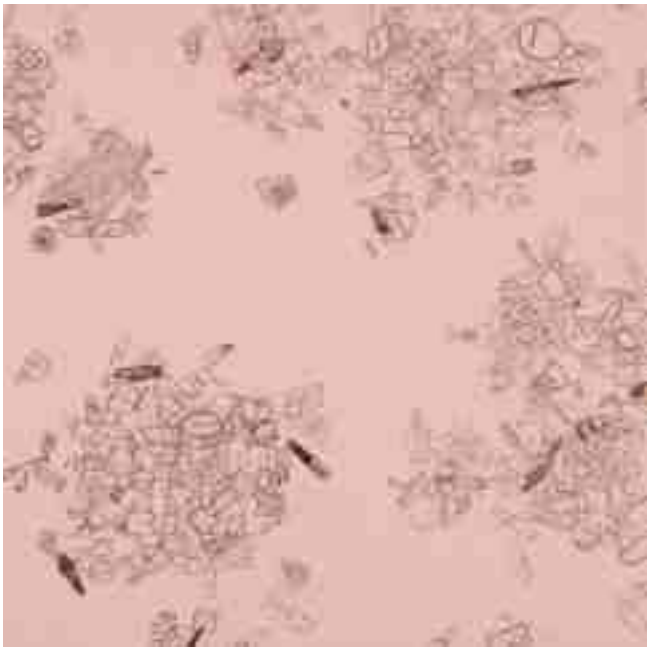
A.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30 108동 808호
M. 010-2957-3593
E. yjhee0322@naver.com

- 2021, 2021년도 올해의 작가 개인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 2020, 조화롭게 살기 위하여,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청주
- 2019, Fade after Fad,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 울산
- 2018, Lipstick and #Lipstick, 충북문화관숲속갤러리, 청주
- 2018, 강릉군집개인전,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한국미술협회 청년작가 초대전)
- 2017, 시선을 모으다, 신미술관, 청주
- 2017, 아트청주, 청주공예비엔날레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상품에 대한 소유(구매) 욕구로 시작된 표현방식과 매체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본 작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 순환 구조를 흥미롭게 여긴다.
욕망에 대한 스토리의 도출은 관람객의 몫으로 돌리지만,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던 물질주의 허무함이 표출된다.

다 다르다 25.8x17.9cm(9EA) mixed media 2022

perfume-03 116.8x80.3cm Mixed media 2021



#cosmetic-03 80x80x15cm pen on canvas 2018

Booth No. 11 김 완 KIM WAN

A.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고지길 29번길 6-2
M. 010-2522 4954
E. sdspirit@hanmail.net

- 개인전 서울,대구,뉴욕,등 20여회.
- 2022 LA베리타스 갤러리 개관기념 한국작가초대전 / 베리타스 갤러리/ LA
- 2021 아트 플러스전 / 포스코 갤러리 / 포항
- 2018 타슈켄트 비엔날레 / 타슈켄트 현대 미술관 / 타슈켄트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퍼스널 스트럭쳐"/ 팔라조 벰보 / 베네치아
- 2016 " 아트랩" / 신세계 백화점 본관 아트월 / 서울
- 키아프. 소아프. 화랑미술제. 아트부산. 대구아트페어. 싱가폴 컨템포러리 아트 쇼 등 국내외 아트페어 100여회

인간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한 인식의 공간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 갈 때 우리는 감옥과도 같은 세상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탁한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현실이 인간 존재를 무저갱으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인간 존재는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사색'한다.
감옥속에서 생명의 시원이자 원류인 '바다'를 그리워하고, '하늘' 그리고 '봄'을 꿈꾼다.

Lightscape-Corner 50X50cm Mixed media 2022

Lightscape-Sea 50X50cm Mixed media 2022

Lightscape-Sea 50X50cm Mixed media 2022

Booth No. 12 양 태 모 Yang tae mo

A.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34번지 YM센터
M. 010-3447-0302
E. ytm0302@hanmail.net

- 단국대 석.박사 졸업, 현재:단국대 예술대 교수
- 개인전 : 37회(뉴욕3회, 독일2회, 프랑스4회, 베니스, 밀라노, 터어키 등)
- 단체전 : 국·내외350여회
- 수상 : 대한만국 미술인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특선4회, 한국미술 진흥원 "최우수 작가상", "대상"
- 한국문화재단이사

외상에 대한 반복과 물(Thing)형상에 대한 작업을 한다. 프로세스는 시기별로 다르게 등장한다.
1기(1990~2000년)-<to Nature>, 2기(2001~2010)-<시점차이 재현과 형상의 경계>, 3기(2011~현재)-Thing(형상)의 이념과 형상화
"빛-Light" 로 물성이 주는 시각의 차이로 확장되어 풀어가며 사회, 역사, 종교, 환경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Light of Soul stone, acryllo 190x150cm 2020

Light of Wind stone, acryllo, 130x400cm 2020

Light of Dhawan stone, acryllo, 45.5x37.9cm 2022

Booth No. 13 왕 문 경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 졸업 후 드로잉 작가로 활동하면서 2021년 소마미술관 드로잉작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전시는 2022년 1월 갤러리 너트에서 〈까마귀를 머리에 인 사람〉으로 펜드로잉 개인전을 했다. 주로 펜과 잉크를 사용하여 작품을 그리고 있고, 드로잉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 있어 삶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죽음을 생각하였고 그 죽음을 자각한 순간을 까마귀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로 현실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타인과 인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공허함 53cmx65cm ink on paper 2021

그들만의세상 72.7x60.6cm ink on paper 2020

미련 53x65cm ink on paper 2020

Booth no.14 이 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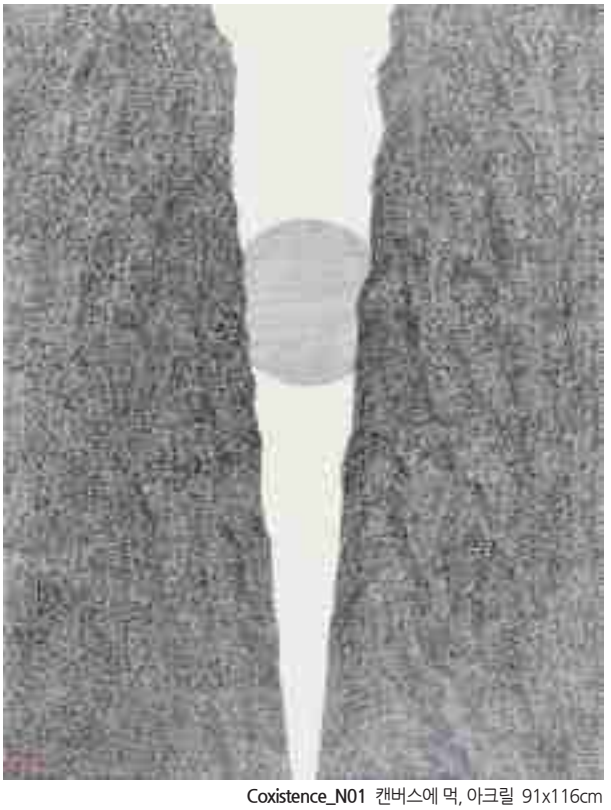
A. 충남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8길 16, 3층
M. 010-4179-8318
E. jjonline@naver.com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동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단체전 다수
- 2018 도솔미술대전 최우수상
- 2013 충남미술대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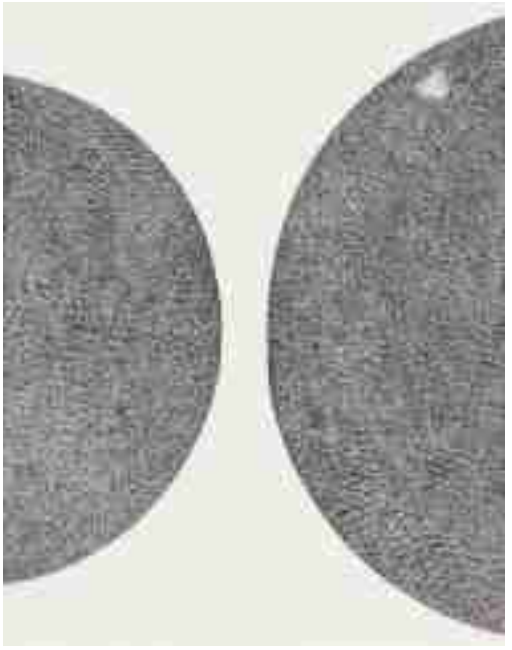
정신이란 본디 단서가 없이 무한히 유전(遺傳)하고
그것은 인연에 따라 형체(形體)를 만나면 그 것에 깃들게 된다.

형체는 자연의 섭리(攝理)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감정과 인식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산수화를 그리는 것에도 감정과 인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끝없이 유전하는 정신이 산수에 깃들었다가 또 여기 산수화라는 형체를 만나
유전하여 깃들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 지길 기대해 본다.



Coxistence_N01 캔버스에 먹, 아크릴 91x116cm



우리 캔버스에 먹, 아크릴 91x116cm

Going_N02 캔버스에 먹,아크릴 117×80cm 2021

Booth no.15 표 주 영 PYO JOO YOUNG

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137동 906호(수내동, 파크타운)
M. 010-6227-6478
E. pjyoung122@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박사과정 수료
- 개인전 10회 (갤러리 도스, 갤러리 그림손, 가나아트스페이스)
- 아트페어 10회 (화랑미술제, 서울아트쇼) 그 외 단체전
- 성신여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백제예술대학, 신흥대학 강사 역임
- 현재 : 춘추회, 나토회, 한국화 여성 작가회 회원

'푸른노트'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를 묻는 물음을 제기하고 내면세계와 외적인 관계를 현상화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존재와 균형, 이성과 감정이 합일된 풍경은 기억의 재생, 조각난 시간의 재결합, 박제, 순환 등으로
화면 위에서 시간성을 부여하며 과거로서의 기록만이 아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나타내고 있다.

푸른노트 53x65cm 한지위에 채색 콜라쥬 2021

푸른노트 110x110cm 한지위에 채색 콜라쥬 2021

정제된 풍경 53x65cm 한지위에 채색 콜라쥬 2019

Booth no.16 류 노 아 Noa Ryu

A.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454-38 스튜디오 2 NOA
M. 010-2513-0026
E. ccaccuri35@naver.com

-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수료
- 개인전 / 2022 Monster Factory Corporation 석서학위청구전 (설미재미술관)
- 단체전 / 2022 문조각회 정기전 (넘버스타즈갤러리)
  2022 "Vuono Vento" 조각 50인 초대전 (대덕문화전당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욕망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내밀한 인간의 모습을 몬스터의 형상을 한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내가 만든 '몬스터' 는 현실 속에서 좌충우돌 살아가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이다.

Love monster F.R.P,steel,우레탄도장 48x67x20cm 2022

Love monster F.R.P,steel,우레탄도장 48x67x20cm 2022

Money monster F.R.P,우레탄도장 31x55x20cm 2022

Booth No. 17 김 정 란 Kim jung ran

A.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늘마을로 184, 현대성우오스타 108-401
M. 010-3602-9427
E. artist_jr@hanmail.net

개인전 26회
- 2021. 10. 〈댕기머리 마산기행〉, Massan 갤러리, 경남 창원
- 2020. 11. 〈긋다〉, 가고시포갤러리, 서울
- 2019. 7. 〈꿈, 이다〉, 아트비트 갤러리 기획 초대전, 서울
- 2018. 12. 〈吉하고 祥서러운〉, 갤러리 밈 제3전시장, 서울 -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 후원

주요 기획전시
- 2021. 10. 〈귤림추색〉, 귤 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 문화예술위원회, 제주메세나협회, NH농협 후원
- 2020. 2. 〈띠 그림〉전,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 이천시립미술관기획전
- 2019. 5. 〈한국화, 이야기하다〉, 안상철미술관, 경기도 양주시 - 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메세나 후원

잠을 자면서 떠오르는 감각의 심상을 꿈이라고 한다.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도 꿈이라 한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어서 헛된 기대나 생각 역시 꿈이라 한다. 그래서 꿈은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 속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이 실재가 아닐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 의식 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방대하고, 존재하는 것(有)보다 존재하지 않는 무(無)의 공간이 훨씬 광활하다는 것이 존재 자체를 허무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Fake 2 82×65.5cm 비단에 채색 2022

Fake 1 82×65.5cm 비단에 채색 2022

DREAM 115X70cm 비단에 채색 2021

Booth No. 18 박 우 성 Park Woo Sung

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54-18 B01호
M. 010-2624-4599
E. artistppark@naver.com

- 2017 2회 개인전 〈What's up?〉 현대 백화점 목동점
- 2012 1회 개인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갤러리 골목
- 2020 〈로봇 아트 팩토리〉 세종문화회관
- 2018 〈설화, 시간여행을 떠나다〉 안산 향토사 박물관
- 〈인형의 집〉 신세계 갤러리 인천점
- 2016 〈뉴(NEW)한 시선, 뻔(FUN)한 일상〉 강릉 시립미술관
- 〈Monitor kids〉 신세계 갤러리 센텀시티점, 신세계 갤러리 광주점

어릴 적 우상으로 여기던 슈퍼 히어로들. 나도 그런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현실 속에 전전긍긍 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
어릴 적 했던 상상들은 그저 그 시절의 달콤한 상상이었을 뿐이라 생각된다.
가끔 이런 지금의 내 모습을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슈퍼 히어로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장난스러운 상상을 해본다.

아이언맨mark43 75x50x90cm paint on resin 2022

레오니다스왕 60x50x70cm oil on resin 2021

다스베이더 60x50x65cm oil on resin 2021

Booth No. 19 김 민 진

M. 010-3542-8847
E. dbsql1318@hanmail.net

-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10회
- 부스전 8회(서울,인천,부산,대구,경주)단체전 다수
- 한국미술협회 대구미술협회, 한국예술인, 대구환경미술협회 회원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풀섶은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곳이 아름다웠다.

푸름을 풀어 낸 풀들의 향기는 풀의 상처다.

풀의 상처인 풀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진정한 작용과 진통작용이 있다.

풀들의 강인한 생명력 위로 보석처럼 빛나는 생명수 아침이슬은 보는이로 하여금 초록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이 풀잎작품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편안함과 생명의 에너지를 얻어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다.

풀섶에 머문 시선(4) 45x45cm Oil

풀섶에 머문 시선(1) 116.8x58.4cm Oil

풀섶에 머문 시선(2) 116.8x58.4cm Oil

Booth No. 20 최 종 용 Choi Jong Yong

A. 강릉시 구정면 칠봉로 419-4 제비리미술인촌
M. 010-9284-3932
E. jayeon10@hanmail.net

-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
- 개인전 8회 부스전 6회
- 평창비엔날레/ 강릉.연변교류전/ 한.일교류전/ 동북아5개국 미술교류전/
- 한국.러시아 국제교류전/ 강원아트페어 특별전/ 춘천박물관 특별전/
- 장길환미술관 개관초대전/ 춘천mbc-힘있는 강원전/ 강릉아트센터 기획초대전/
- 강릉문화재단 기획초대전/ 미술관가는길 개관초대전/ 갤러리라메르 기획초대전

파도의 다양한 표정과 거품의 모양을 작업의 모티브로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왔다 가는 잔잔한 파도의 모습을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그저 평범하게 바라보던 바다의 모습을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친숙한 내면의 풍경이자 정신적 사유의 공간으로 보여주고자 함.

Nature 140X87.5cm Oil on canvas 2021

Nature 80.5X130.5cm Oil on canvas 2021

Nature 65X50cm Oil on canvas 2021

아트강릉21 초대작가 김 환 기 HWAN KI, KIM

A. 강원 강릉시 죽헌길 44번길 41(김환기 화실)
M. 010-9924-0391
E. kwhan66@daum.net

- 1회 개인전(1988 강원대학교 / 박물관 대전시실)
- 1회 부스展(2018 강원아트페어 / 강릉아트센터)
- 2회 부스展(2020 강원아트페어 / 강릉아트센터)
- 3회 부스展('아트강릉21' / 강릉아트센터)
- 4회 부스展('아트강릉22' (2021년 최우수작가 초대전) / 강릉아트센터)
- Fantapia. M 미술관 개관 16개국 국제초대전 / 신사임당展 및 전국공모전 다수
- 신사임당 국제초대전, 강릉아트센터 개관기념전, 강원구상작가전 외 단체전 다수
-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회원, 강원도교원미술전 초대작가, 강릉고등학교 재직

1986년부터 작가는 자연의 대상을 면과 점 그리고 수많은 선을 오랜 시간 중첩하여 표현하면서
캔버스 자체의 화면 위에서 색의 분할과 혼합이 이루어져 다양한 이미지와 느낌을 연출하는
창의적인 방식의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생동하는 대자연의 본질과 기운을 독특하게 표현함.

'향수-경포호 인상' 100×70cm oil on canvas 2021

'백령도 인상' 81× 54cm oil on canvas 2022

'통영-한산도 인상' 90×43cm oil on canvas 2022

아트강릉21 초대작가 박 건 영 Park Geun Young

A. 강릉시 강릉대로 501-3 흙으로(도예연구소)
M. 010-5372-5019
E. art5019@naver.com

- 개인전 18회(아트페어포함)및 단체전 250여회
- 2000년 제16회 강원미술상수상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소장(2008년,2010년)
- 돋음도예가회/초설회/강원미술대전초대작가
- 강원미술대전,경인미술대전심사위원역임
- 신사임당미술대전운영위원장역임
- 한국미술협회강릉지부장역임

꽃보다 꽃병...

꽃이 담겨 있지 않아도 뭔가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것 같은 꽃병,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도 그런 꽃병이 하나씩 있었으면...
꽃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식탁위에 놓였을 때 맛있는 음식보다 더욱 빛날 것 같은 꽃병을 통해,
물질에 대한 탐욕보다는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화병(산이미지) 16×16×46㎝ 분청1280℃환원소성

화병(산이미지) 백자1265℃환원소성

화병(산이미지) 백자토,1265℃환원소성

특별전

이장우 김성훈 신연수 정서원 최미향 김경주 권승연 김소선 최은숙 유재희
김　완 양태모 왕문경 이정식 표주영 류노아 김정란 박우성 김민진 최종용
아트강릉21 초대작가 김환기 박건영

이장우 Booth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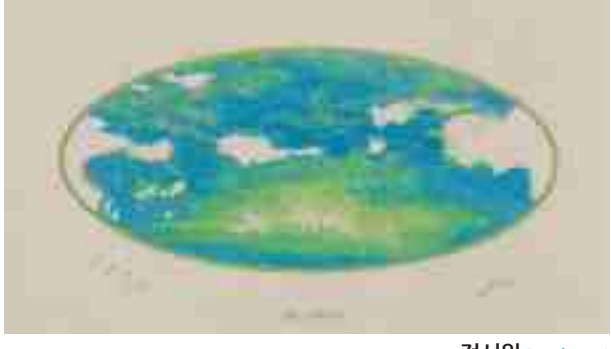
장미 40.9x53cm, oil on canvas, 2021

김성훈 Booth no.2

코뿔소 11x30x12cm, aluminum foil, gold wax,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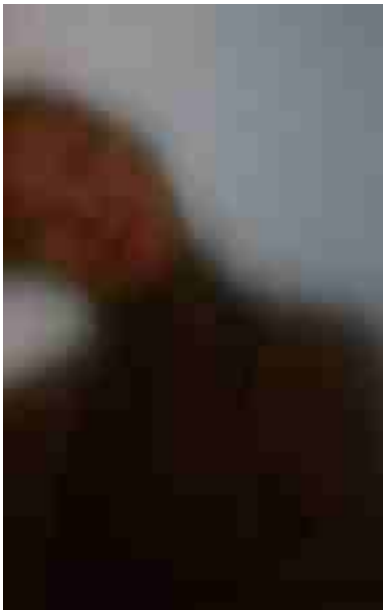
신연수 Booth no.3

O#2 20.0 x20.0cm, Cement,sand,oil on canvas, 2022



정서원 Booth no.4

Fountain 40x26cm, 장지에 실크스크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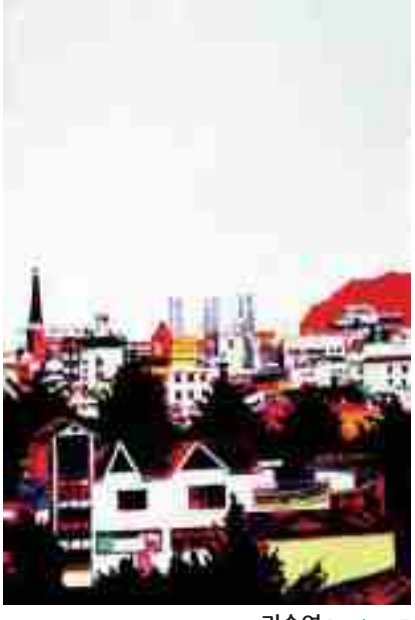
최미향 Booth no.5

The Turn of Life

80x55cm, Pigment_based Inkjet Print on Epson Premium Lustre, 2018

김경주 Booth no.6

Unknown Square 45x45cm, acrylic on canvas, 2022



권승연 Booth no.7

월대산 33x53cm, oil on canvas, 2010

김소선 Booth no.8

행운 27x23x33cm, 대리석, 2017

최은숙 Booth no.9

봄날 64.5X53cm, 캔버스위에 혼합채색, 2014

유재희 Booth no.10

taste 25.8x17.9cm(3EA), mixed media, 2022

김 완 Booth no.11

Lightscape-Corner 30X30cm, Mixed media, 2022

양태모 Booth no.12

Light of Dhawan 45.5x37.9cm, stone,acryllo, 2022

왕문경 Booth no.13

흐르는 시간처럼 35x35cm, mixed media on paper, 2020

이정식 Booth no.14

너에게 45x33cm, 한지에수묵채색, 2021

표주영 Booth no.15

새벽을 여는 시간 45x45cm, 한지위에 채색 콜라쥬, 2019

류노아 Booth no.16

Prey monster(drawing) 53x72cm, Acrylic on Canvas, 2022

김정란 Booth no.17
잠1 52x39cm, 비단에 채색, 2021

박우성 Booth no.18
캡틴 아메리카 45x55cm, oil on canvas, 2022

김민진 Booth no.19
풀섭에 머문 시선 116.8x80.3cm, Oil

최종용 Booth no.20
Nature 20X20CmX3점, Oil on canvas, 2021

아트강릉21 초대작가 **김환기**

하롱베이 인상 53×33.4cm, oil on canvas, 2022

아트강릉21 초대작가 **박건영**

화병(와準) 백자토,1280℃환원소성

아트강릉22

발행처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발행일 2022년 6월 13일
편집 및 인쇄 (주)동방디자인 T.033)647-2609

주소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아트센터 3층
Homepage http://www.gnfaa.org/
E-mail kangyoor@hanmail.net

※ 본 도록에 실린 이미지는 작가와 사전 협의 없이 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합니다.